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청년건축가 리빙랩의 가치
The Value of the Living Lab as Youth Architects for the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양지원* 유해연**
Yang, Ji-Won Yoo, Hae-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case of a start-up living lab led by SH Corporation, which can be operated by young architects and residents, and to propose the dir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case of SH Corporation-led start-up Living Lab, which can be operated by young architects and residents together, and to suggest future improvement direc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processes. First, the definition and background of Living Lab were analyzed. Second, representative cases of domestic living lab operation was analyzed. Third, it revealed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H Youth Architect Project. Fourth, the current status,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living labs operated by young architects were analyzed. Finally, the direction of living lab model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as proposed.

Keywords : Living-Lab, Sustainability, Urban Regeneration, Young Architecture, Vacant House
주 요 어 : 리빙랩, 지속가능성, 도시재생, 청년건축가, 빈집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도시는 1970-1980년대 전면 재개발, 재건축 방식을 통해 효율적인 경제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지역 원주민의 이탈, 지역 정체성 상실, 개발 과정에서 주민 커뮤니티의 와해 등, 지역이 가진 고유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함과 동시에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통한 커뮤니티의 재생이 2000년대 초부터 화두가 되고 있다. 다양한 도시재생 방법 중에서도 공공이 지원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상의 실험실'로서 주민참여를 중점으로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리빙랩 모델이 도시재생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H공사가 주도하여 1년간 지원하고, 이후 청년건축가와 주민이 함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SH청년건축가 프로젝트라는 창업형 리빙랩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리빙랩의 정의와 도입 배경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대표적인 국내 리빙랩 운영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SH청년건축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밝혔다. 넷째, 청년건축가가 운영하는 리빙랩의 현황과 특징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지 내 리빙랩 모델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 정회원(주저자),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교신저자),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School of Architecture, Soongsil University, zenism@ssu.ac.kr)

본 연구는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번호: NRF-2020R1A2C1006354

II. 리빙랩의 정의와 도입 배경

리빙랩의 정의는 다양하나, 보편적으로는 말 그대로 '일상의 실험실'로써 사용자가 직접 제품을 일상에서 사용하고 실험하여 피드백함으로써 제품 개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제품 개발 모델의 일종이다. 리빙랩의 개념은 기업의 제품 개발과 사업화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제품 개발뿐 아니라 도시, 사회, 정책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던 리빙랩의 방법론이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중요성과 결합되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재생 리빙랩은 추진 주체에 따라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복합형으로 나뉜다. 공공의 경우 미래부, 중앙정부, 서울시 등의 지자체 등이 있다. 민간의 경우 사회적 경제나 시민사회를 들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모델로서 진행되는 복합형의 사례도 있다. (성지은·한규영·박인용 (2016나), "국내 리빙랩의 현황과 과제", 「STEPI Insight」, 184.) 리빙랩은 각 유형마다 다른 특징을 보인다. 단일 유형으로 리빙랩을 운영하기 보다는 각 유형이 가진 리빙랩이 장점을 적합한 프로세스에 차용하는 복합적인 리빙랩 모델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선행연구 및 국내 운영 사례 분석

국내의 대표 리빙랩 사업으로는 종로구 북촌 IOT사업, 동작구 성대골 에너지 전환, 대전 건너유 리빙랩 프로젝트, 독산동 행복주차 프로젝트가 있다.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는 네 개의 사례들에서도 현재 어떤 주민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는지, 어떤 중간조직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리빙랩 관련 사업의 시도가 있어왔고 특히 IOT 분야와 연계된 스마트도시를 향한 방향성이 눈에 띄는 점이다. 하지만 사업 종료 후 운영 및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의 한계성을 보인다.

표 1. 국내 대표 리빙랩 분석

사업명	종로구 북촌 IOT 사업	동작구 성대골 에너지 전환 사업	대전 건너유 리빙랩 프로젝트	행복주차
목적	거주민,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	에너지 전환 시도	호우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해결	지역 내 주차문제 해결
수행 주체	미래창조과학부	주민모임	카이스트,충남대 연구팀, 주민	정부
의의	- IOT 기술 활용	- 구축된 주민 네트워크 활용	- 시민 주도의 문제해결 - IOT 기술 활용	- IOT 기술 활용 -
한계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 후 지속 가능성			

IV. SH청년건축가 사업

1. 사업 개요

SH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는 2019년 3월, 저층공공주택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공간복지 모델을 주제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최한 '제5회 SH청년건축가 설계공모전'의 특전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총 3가지의 목적을 갖는다. 첫째, 노후한 공공주택을 활용하여 새로운 주거공간을 제안. 둘째, 생활SOC를 공급하여 공간복지를 실현. 셋째, SH청년건축가들이 SH지역건축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것이다. 해당 공모전에서 입상한 총 7개의 팀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아 총 6개의 팀이 최종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였다.* 사업은 총 3단계로써, 사업 참여 인원을 선정하는 설계공모전 1단계, 참여인원들이 지정된 멘토와 함께 공간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공간을 조성하는 2단계, 참여 인원들이 리모델링한 반지하 공간을 복지공간으로 운영하는 3단계로 구성되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제6회 SH청년건축가 설계공모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2. 민-관-학 협력 모델

SH청년건축가 주도형 플랫폼 프로젝트는 관(SH, 지자체)과 민(주민), 학(다수의 참가자가 대학생)의 거버넌스 모델의 구축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SH공사는 사업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운영 예산을 지원한다. 운영되는 공간의 실질적인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참가자들은 2단계부터 3단계까지

* SH도시연구원, https://www.i-sh.co.kr/shuri/index.do

의 과정 동안 지역 활동 전문가 그룹의 교육, 코칭을 받음으로써 리빙랩 분야에 있어 준전문가로써 육성되었다. 이러한 모델은 공공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자 그룹과 함께 다양한 실험의 피드백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리빙랩 중간조직의 역할과 유사하다. 참가자들이 지역 내에서 복지공간을 운영하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하며 발전해나가는 해당 프로젝트의 방향성은 리빙랩이 가진 기본적인 성질, '일상의 실험실'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림 1. 청년건축가 주도형 프로젝트 진행 과정

3. 중간 조직 육성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리빙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필요하다. SH공사는 SH청년건축가들을 리빙랩 사업의 중간조직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준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참여팀은 1년 반의 기간 동안 지역의 문제 파악, 공간 컨셉 및 프로그램 기획, 공간 실시 설계, 실제 운영, 예산 처리 방법에 이르기까지 주민복지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교육받았고 실제 운영까지 현재 이어오고 있다.

4. 지역 네트워크 구축

리빙랩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 지역과의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 참여팀 중 하나인 공채움팀의 경우, 서울시 양천구 목2동에서 가드닝을 컨셉으로 한 공간인 '이너가든'을 운영 중이다. 실내에서 분갈이를 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며 방문자들에게 작은 식물을 나눠주는 활동, 식물키트를 나눠주는 봉사활동, 주민모임공간 대관 등을 진행하였다.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방문자에 대해 방문명부를 작성하여 결과, 총 278명이 공간에 누적 방문하였고 재방문율은 20%이다. 규모가 크지 않은 공간이며 공간 관리 문제로 인해 주 1회만 공간 운영하였음을 고려하였을 때 비교적 많은 주민이 공간을 방문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주민과 주민, 주민과 청년건축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이 공간에 익숙해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간에 대한 피드백을 내고 있는데, 이 점은 주민이 지역 내 새로운 공간의 주체로써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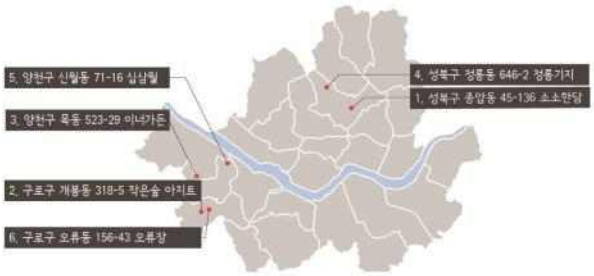

그림 2. SH청년건축가 프로젝트 공간 위치 현황

표 2. SH청년건축가 주도 플랫폼 공간별 특성

공간명	1. 소소한담	2. 작은숲 아지트	3. 이너가든	4. 정릉기지	5. 십삼월	6. 오류장
추진 배경	주민 복지 공간 확충					
위치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45-136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318-5	서울시 양천구 목2동 523-29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646-2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71-16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56-43
운영팀/직업	House+X / 대학생	For-Rest / 대학원생	공채움 / 대학생, 대학원생	정릉기지 / 대학생	삼차선 / 직장인(건축)	시소 / 직장인(건축)
목표	- 지역의 가치를 발견, 기록하고 이어나가기 위한 마을디자인 작업 - 공유주방 운영	- 젊은 주부를 위한 자기계발 공간 및 주민소통공간 -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홍보 및 연결	- 가드닝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와 공간, 교육 프로그램을 주민에게 제공함으로 지역 커뮤니티 형성	- 정릉동 배밭골 기반 아카이빙 활동 - 주민 대상 이벤트 개최를 통한 주민-청년 간 커뮤니티 형성	- 청년작가 레지던시 및 지역연계 전시공간 운영 - 지역 주민 참여 예술 프로젝트 진행	- 지역사회의 건축에 대한 인식 재고 - 건축 기반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건축학교 운영
주요 수요층	20-30대 청년	20-30대 주부	40-60대 주부	20-30대 청년	10-40대 주민	40-60대 주부
공간 컨셉	공유 주방	주부 모임 공간	실내 가드닝 공간	청년 공유 공간	실내 예술 전시 공간	건축 교육 공간
운영 방식	상시 방문	주민 관리자 상주	주 1회 정기방문	상시 방문	주 1회 정기방문	주민 관리자 상주
지역네트워크 협업	지역문화재단	지역주부카페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 인근 상인	지역문화재단	건축가

5. 반지하 공간 개선 시도

본 프로젝트는 SH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의 반지하를 개선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주거 공간 이외의 공간으로써 반지하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습기, 누수, 채광량과 환기량의 부족과 같은 반지하 본연의 물리적인 취약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극복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공간운영과정에서 곰팡이 등과 같은 하자가 발생한 한계점은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

그림 3. 목2동 이너가든에서 이뤄지는 주민 모임 2020.9)

그림 4. 목2동 이너가든에 방문한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 (2020.6)

6. 사업의 한계 및 방향성

해당 사업은 리빙랩의 개념이 공공주도 도시재생 사업에 적용된 실험적인 사례로써 갖는 의의가 있지만, 그 구체적인 실현 방향에 있어 두 가지 한계점을 보인다. 첫째는 지속가능성의 미흡이다. 본 사업은 2020년도 12월 사업 종료 예정이나, 종료된 후 공간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공공주도 리빙랩 사업의 일회성이 나타나는 한계점이다. 사업 참여팀, 지자체, 지역도시재생센터, 지역문화재단 등 공간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또한 사업의 장기적 관점의 부재로 인해 사업의 참여팀들은 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세우지 못하였고 이는 공간의 정체성 부족 및 참여팀의 참여 동기를 하락시키는 점으로 작용하였다. 둘째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의 부재이다. 리빙랩 사업에 대한 지원이 끊긴 후 각 공간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경제적 수익활동을 이어나갈 방법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사업 초기 구상과 다르게 공간을 활용한 수익 활동이 금지되었는데, 이는 공공의 재원을 활용한 개인의 수익 창출이 불가하다는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 종료 후에도 자생적으로 해당 사업모델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V. 결론

최근, 리빙랩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리빙랩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9 SH청년건축가 리빙랩 프로젝트를 지속가능한 모델로써 분석하고, 리빙랩 사업으로서 한계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리빙랩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네트워크 구축과 중간조직으로 청년건축가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본 사업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공채움팀의 목2동 이너가든 공간을 대표사례로 하여 그 과정을 통해 사업의 의의와 한계점을 정리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공간을 기획, 설계, 운영하는 전 과정에 청년 건축가를 주체로 삼음으로써 새로운 중간조직으로 양성하였다는 것, 공간의 운영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민, 도시재생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청년건축가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의 계획 부재와 법적 제약으로 인해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보였다.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공간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편함으로써 본 리빙랩은 지역 내 주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간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추후 지역 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킴으로써 주민들과 함께 자생할 수 있는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성지은, 송위진, 정병걸, 최창범, 윤찬영, 정서화, 한규영. (2017). 국내 리빙랩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정책연구, 1-194.
2. 옥진아, 정효진. (2019). 도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경기도 리빙랩. 이슈&진단, 1-25.
3. 박준호, 박정우, 남광우. (2019).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리빙랩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연구, 35(3), 33-44.